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8월 3주차 동향 [8.17.~8.23.]

민원 동향

순위	민원 키워드	주요 내용	건수
1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요청	3,482
2	불법광고물	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3,210
3	위례선 트램	개통 대비 협의사항 이행 등 요청	1,322
4	@@@역 변전소	변전소 설치 반대	1,037
5	불법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인터넷 광고 등 신고	756
6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투기 신고	607
7	제2경인선	조속 추진 요구	401
8	방역 요청	모기, 진드기 등 해충 방역 요청	392
9	●●지구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323
10	위례삼동선	위례신사선 연계 요청 및 추진 반대 등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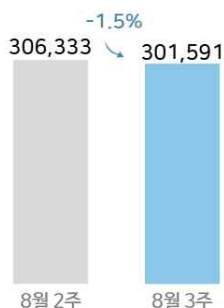
데이터센터 반대
쓰레기 투기
변전소 설치 반대
위례선 트램 방역 요청
고양은평선
불법광고물
인터넷 의료광고
제2경인선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교통단속민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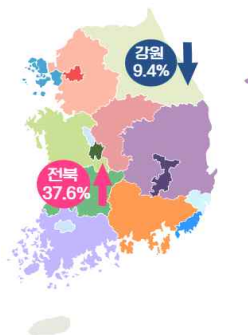
※ 8월 1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8월 3주차 민원은 301,591건(일평균 43,084건)으로 지난주(306,333건) 대비 1.5% 감소
- 지역별로는 전북(37.6%), 대전(6.4%) 등 증가, 강원(9.4%), 부산(8.5%) 등 감소
- 분야별로는 댐 개방 여부 및 관리 문의 등 수자원 분야 증가, 수입신고 대상 여부 등 세무 분야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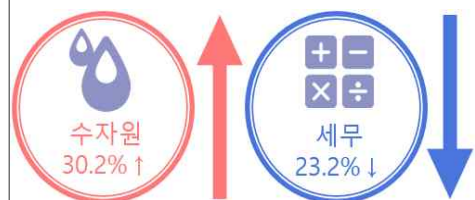
【 민원 추이 】



【 지역별 증감 현황 】



【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

□ ◆◆ ○○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26건]

○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검토요청** 산사태와 침수뿐만 아니라 정전과 단수, 도로 및 공공시설 파손 등 광범위한 피해가 이어졌으며, 현재도 많은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피해를 수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차량과 주거지, 생업의 터전을 잃거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음에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그 피해 규모가 너무나 큼니다. 이번 재난은 지방정부의 행정력과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피해 범위와 규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무너진 시민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고, 파손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19.)
- 저희 아파트는 침수 피해로 인해 단전·단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재난 발생 후 일주일도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세대가 많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더라도 물과 전기가 없어 식사와 세면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 역시 차량 침수로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순히 차량 자체의 손상뿐만 아니라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고가의 전자·기술 장비 등 개인 재산까지 함께 침수되어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숙박비나 식사비 등 긴급 생활지원과 개인 재산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디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현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살피주시고, ○○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8.20.)
- 이번 ○○ 지역의 피해 규모와 재난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무너진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 시민들의 피해가 단순한 지역 뉴스로 묻히지 않고 국가적인 재난 대응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번 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 시민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8.20.)

□ ♣♣♣♣병원 이전 예정에 따른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요구[224건]

○ 이전 예정 부지의 주변 교통량 증가 및 통학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

- ♣♣♣♣병원 이전 예정 부지의 진출입로가 아파트 진출입로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도로는 양방향 편도 1차선의 협소한 도로입니다. 특히 해당 도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통학로이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러한 도로에 재활병원이 이전하고 병원 이용 차량, 구급차, 대형 차량 등의 통행이 증가할 경우 학생들의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8.20.)
- ♣♣♣♣병원 이전과 관련하여 인근 입주민 및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의 진출입로가 아파트 출입구와 인접하고 학교 통학로와도 가까운 만큼,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주민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8.19.)

□ ♠♠ ●●중학교 교실 냉난방기 교체 요청[42건]

○ 교실 온도 상승과 기존 가스식 냉난방기 고장 반복에 따른 전기식 냉난방기 교체 요구

- 계속되는 냉난방기 고장으로 인해 개학 후 교실 온도가 30~32도까지 치솟아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임시방편식 수리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개학 후 전 교실 온도가 30도 이상, 최고 32도까지 상승하여 이동 수업을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8.19.)
- 총 22개 교실에 설치된 가스식 냉난방기가 작년부터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장 나고 있습니다. 이미 수리 보수한 8곳에서도 동일한 고장이 재발하고 있으며, 유지비용 부담이 크고 A/S 조치마저 지연되어 땀질식 처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4개 반의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의 피로도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개선되지 않는 노후 가스식 설비를 효율적이고 즉각 대처가 가능한 전기식 냉방 설비로 전면 교체해 주십시오. 임시 수리가 아닌 근본적인 설비 개선 일정 및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8.20.)

알림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 중 증가 추세이거나 관계 기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이후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 ○○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1AA-2608-0755560	행정안전부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검색하고 분석이 가능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분석시스템을 기관별 민원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